

‘與 재보선 참패’ 호남 향후 정국 촉각... ‘잠룡’ 이낙연 위기



더불어민주당이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4·7 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하면서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여권

李, 당대표 시절 ‘성추문 공식’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 책임 목소리 나와 정세균 총리 대권 가도 합류 ‘초읽기’...野 ‘호남껴안기’ 대선까지 이어질 듯

의 최대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민은 향후 정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내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이었던 재보궐 선거 결과가 11개월 남은 대선까지 이어질지 여부와 ‘호남 대망론’을 꿈꾸던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회 회장의 향후 행보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국회와 호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4·7재보선에서 여당의 대패로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이 위원장의 책임론이 분출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권 주자 지지

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이 위원장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반등의 기회를 잡으려는 구상이었으나 물거품이 됐다. 한국도지주택공사(LH) 사태 등 부동산 정책 실패가 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지만, 이 위원장이 당 대표 재임때 성추문으로 공식이 된 서울·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보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해야 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어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4·7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페이스북을 통해 “제 책임이 크다”면서 “문재인 정부 첫 국무총리, 민주당 대표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가 부족했다. 당원과 지지자를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고 했다. 그는 “4·7재보선으로 표현된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나는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미래를 차분히 생각하며, 낮은 곳에서 국민을 뵈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부인이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신도 자가 격리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재보선 참패 책임론에 대해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위원장이 궁지에 몰리면서 ‘이낙연·이재명’ 양강구도의 균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보선 이후 사퇴가 기정사실화된 정세균 국무총리의 본격 대선 행보로 인해 여권의 대선구도에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이번 재보선 승리의 최대 공로자 중 한 명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해 전례없는 5·18국립묘지 무릎사과 이후 호남 지역에 현역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제

2지역구 갖기’ 행보에 이어, 비례대표 의원의 호남 출신 전진 배치 당론 결정 등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불모지인 호남에서 김 전 위원장이 뿌려 놓은 씨앗을 바탕으로 내년 대선에 두자릿수 득표율을 노릴 것으로 보이며 대선 승리로 이어진다면 김 전 위원장은 명실상부한 ‘김메이커’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4·7재보선에서 참패하면서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책임론에 따른 대권 가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지지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어 이 위원장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野 대선판 ‘尹·安 초점’...사이즈 커지고 일찍 달궈질 수도

윤석열·안철수, 국민의힘과 관계 설정 관심



국민의힘이 4·7재보궐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야권의 대선 기대감이 커진 만큼 그에 따른 대선판 사이즈도 커질 전망이다. 내년 3월에 치러지는 대선에 일단 청신호가 켜진 만큼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야권 대선판이 달궈질 수도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 대선주자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도지사, 홍준표 무소속 의원 등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국민의힘이 재보선 승리를 동력으로 주도권을 잡고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야권 재편의 향배에 따라 잠룡들도 대선 레이스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선정국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도 전에 잠룡간 눈치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야권 대권주자 중 대선 윤 전 총장의 존재감이 가장 두드러진다. 윤 전 총장은 ‘정치 초보’지만 야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유력한 잠룡이다. 여권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상당한 격차를 두고 선두를 달리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대권 행보도 주목할만하다. 안 대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유턴했지만, 국민의힘과 단일화 경선에서 패한 만큼 내년 대권 도전에 나설 확률이 높다. 안 대표가 단일화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의힘과 합당을 공언했던 만큼 다시 한번 국민의힘 후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안 대표로선 호랑이굴에서 싸우는 신세지만 윤신의 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기간 내내 전면에 나서 유세를 지원했고, 중도층의 표가 국민의힘으로 쏠릴 효과를 낸 데에도 중도지 지층에 대한 흡인력이 강한 안 대표의 ‘공(功)’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일관되게 중도 노선을 걸은 안 대표에 국민의힘 내부에

서도 상당수가 호감을 보인 만큼 재보선에선 조직력 열세로 철수했던 안 대표의 대권 경쟁력을 무조건 평가절하할 수만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중에선 유승민 전 의원이 재보선 선거가 끝난 만큼 본격적으로 당내 세력화 작업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개혁보수로서 강성 보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유 전 의원은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을 거치면서 예전보다 영향력을 상실한 측면도 있지만, 개혁보수로서 중도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고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는 강점이 있다. 원희룡 지사와 홍준표 의원도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 야권 대선판에 합류할 전망이다. 오래전부터 대권 준비에 담급질을 해온 원 지사는 여의도와 떨어져 있지만 중요 현안마다 입장문을 내 ‘SNS 정치’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대선에서 낙선한 만큼 이번 대선에 다시 대권 재도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힘 복당 문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주호영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4·7 재보궐선거를 마지막으로 퇴임하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감사패를 받으며 악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참패’ 성적표 받은 文대통령...정세균 총리 포함 개각 속도

4·7 재보궐선거 성적표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개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8일 선거 결과에 관련해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 낮은 자세,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을 임하겠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청와대가 민심 수습용으로 가장 먼저 꺼낼 가장 유력한 카드는 개각이다. 대권 도전을 위해 4·7 재보궐선거 후 사퇴가 예정됐던 정 총리에 대한

후임 인사를 시작으로 인적 쇄신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각은 내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 총리의 사의 표명과 후임 발표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 총리가 실제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후임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 절차가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4월 말·5월 초 사퇴가 예상되지만, 정 총리가 대권 도전에 나서려는 만큼 더 일찍 사퇴할 수도 있다. 정 총리를 시작으로 ‘장수 장관’들

에 대한 인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사의를 표명해 교체 예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임으로는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을 하다 국토부 1차관으로 복귀한 윤성원 차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정일영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이른바 ‘장수 장관’들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 직통전화 010-2400-7774

☎ 주문팩스 062-946-0053